선행 연구의 남미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ODA, FDI, 수출량은 경제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선, ODA는 전쟁이 끝나고 냉전 체제가 지속되는 정세 속, 빈곤한 국가들에게는 경제 성장의 큰 요소가 되었다.[1] 하지만, 원조 받는 국가들의 경제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진 국가들에는 ODA가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 정도 살게 된 이후에도 원조가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분석을 실행하였다.

우선 ODA의 동향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된 시점에도 여전히 양은 시시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FDI나 수출량은 경기가 향상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실제 세 대륙의 분석 결과는 ODA는 세 대륙 중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어느 정도 경기 완화를 보이기 시작하는 80년대 후반기저부터 원조에 의한 경제성장은 그닥 효과가 없음을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대부분의 국가들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World bank의 low income 국가들이고 CPI지수가 상당히 낮은 국가들이기에, ODA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

남미 결과 해석 백업

남미의 결과 Export의 단기 생산성과 GDP성장률에 매우 강한 긍정적 영향(0.5)

을 미쳤고 정부 지출의 단기 영향력도 강함.

실례로 남미국가들의 자원 수출 의존도는 매우 크다.

에콰도르의 경우 석유 부분이 GDP의 14~20%를 차지, 수출 소득의 절반이상, 정부 수입의 20~30%를 차지한다. [3] 칠레의 경우도 구리 수출만 전체 GDP의 8%가 되고 이는 수출량의 52%를 차지한다.[4] 페루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의존도가 50%를 상회함을 알 수 있다,[5]

하지만 ODA, FDI의 영향이 별로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

중남미 FDI 유입의 부문별 집중도를 보면 1996-2002 기간에 서비스 부문이 전체의

57%를 점유하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8% 그리고 1차 부문이 15%를 점유하였다.[6]

1차 산업부분은 주로 원자료를 가공하고 수출을 하는 산업분야인데, 몇몇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저소득 국가는 여전히 1차 산업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동남아 결과 해석 백업

GDP 성장률에는 단기의 EXPORT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으나 주목할 점은

TFP의 성장률에 정부 지출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말레이시아나 태국, 베트남 중심으로 IT분야나, 제조업 분야의 무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규모를 확대함으로 경제 성장을 꾀하려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다. 실제적으로 경제 성장률에 많은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백업 자료를 찾지 못했다..ㅠㅠㅠ

아프리카 결과 해석

우선 4 모델 다 단기의 FDI는 강한 양의 영향력을 미쳤고 EXPORT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FDI는 강한 음의 영향력을 미쳤다.

사실 아프리카에 FDI가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다국적기업의 진출이 주를 이룬다. 다국적 기업의 선진 기술은 기업의 지적자본과 기술로 구성된다. 선진 기술은 기업 관점에서의 기업 우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FDI로 인한 현지국의 경제적 발전 사이의 관계에도 기여를 한다.[7]

FDI유입은 현지국에 자본, 과학기술, 기업 경영자원 등을 제공해주고 이를 통해 자본이 부족하지만 노동력이 풍부한 현지국에 고용창출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다.[8] 외국 기업들이 현지 국민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 단기 FDI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 ) 또한 FDI유입으로 인한 현지국의 하이테크 기술에 대한 접근은 단순한 원재료의 수출에서 비교적 하이테크 제품들의 수출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9] (export 영향 요인)반면에 FDI 유입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의한 현지 시장이 잠식되면 이로 인한 현지국기업의 매출감소와 고용감소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FDI 음의 영향 요인)[10]

참고 자료

[1] *(2015, 최창환) 무역ODAFDI가 남미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ODAFDITrade on the South America"s Economic Growth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2] *(2013, 최윤진) 민주주의 수준에 따른 유·무상원조의 효과성 분석*

[3]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Ecuador 해외 출장 자료*

[4] *대외 정책 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칠레 새 정부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5] *(2015, 최창환) 무역ODAFDI가 남미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개국 비교를 중심으로 The Impact of ODAFDITrade on the South America"s Economic Growth :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6] *(2005, 최윤국) 중남미 투자 및 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FDI를 중심으로*

[7] *(2019, 박나민, 정석균, 임형록) 부패가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성장 효과에 미치는 영향 사하라사막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8] Selma and Kurtishi-Kastrati, The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for Host Country’s Economy, Europ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2013), Vol.5, No.1, pp26~38

[9] Lipsey, Robert E., Home and Host Country Effects of FDI”, NBER Working Paper Series, Working Paper 9293 (2002).

[10] Ram, R. and Zhang, K.,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Cross-Country Data for the 1990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2), Vol. 51, No. 1, pp205-215.